



▲녹색계란(주)가 9월 22일 전격 출범하였다. 이 자리에는 박준형 전남도지사(가운데)가 직접 참여하여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 녹색계란(주) 탄생으로 계란유통 안정화 꾀한다

— 국내 최대 규모, 1일 100만개 처리 —



▲정준규 추진위원장이 추진배경을 설명하였다.

계란의 근본적인 유통문제를 해결하고 수급조절 능력과 고품질의 계란을 안정적으로 공급키 위한 일환으로 전남 나주시 소재에 녹색계란(주)이 탄생하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녹색계란(주)(설립추진위원장 정준규)은 지난 22일 나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전라남도과 나주시가 후원하여 녹색계란(주) 창립총회를 갖고 전격 출범하였다.

녹색계란(주)는 지난 4월 양계협회 전남도지회 이사회에서 추진을 결정하고, 협의회 및 사업설명회 등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한 후 지난 9월 8일 정영진을 임명하는 등 추진에 활력을 불어 넣었다.

이번 녹색계란(주) 설립을 위해 농가 1인당 500만원 이상을 출자, 총 자본금 12억4천만원을 조성하여 나주시 운곡동 나주산업단지 내에 부지를 마련한 상태이며, 계란집하시설, GP센터 및 가공공장에서 신선란 및 구운 계란, 액란, 난분 등 가공제품을 생산하여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2010년 준공을 앞둔 유통센터는 처리능력이 1일 100만개로 5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예정이다. 이번에 선임된 대표이사는 김건완 씨로 전 전남무역대표를 지냈으며, 총무기획팀장은 이윤희 씨로 전 대우인터네셔널에서 중책을 맡아왔다. 이날 총회에서는 정준규, 봉필신, 윤한성, 김희식, 정승안 씨가 이사로, 김용팔, 정영채 씨가 감사로 선출되었다. **양계**